

장밋빛전망 금지, 임상실패확률·기술이전리스크 의무공시

# 바이오업계 “가이드라인 너무 세밀... 기밀유출 우려”

금융위, ‘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 실현되지 않은 내용 광고 불가능 일부 상장사 “기업활동 위축시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KRX)가 바이오주에 대한 공시 강화 등 대책을 내놓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바이오기업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이어 한국거래소도 12일 내용은 ‘코스닥시장본부 주요 추진사업 계획’에 비슷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비정상적인 급등락을 반복했던 바이오주의 ‘널뛰기 장세’를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일부 상장사 사이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앞으로 바이오 기업은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공시할 수 없다. 투자자가 임상 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판단을 할



경기도 성남시의 한 제약기업에서 연구원이 제품 개발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도록 주의 문구도 삽입해야 한다. 대책과제와 특허권 계약도 명확해졌다. 중요 보유기술에 대한 대책과정 선정과 중요한 특허권 취득, 양수도 계약 체결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급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업종 특성상 투자위험도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단계별 불확실성도 많다. 시장에서의 풍문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공시 가이드라인에 힘을 실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하며 상장법인

의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속 부실 공시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제약·바이오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날 거래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바이오 기업은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미리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임상을 신청했다는 공시를 할 때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식이다.

기술이전계약 공시를 할 때도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향후 임상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쓰는 것으로 투자자에 암묵적 경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실현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광고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나친 광고는 바이오주 널뛰기 장세의 이유로 꼽혔다.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판단으로 성공했다고 마케팅 하는 곳 위주로 주가가 반등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바이오 기업은 지난주까지

‘임상 2b상 환자 모집 모두 완료’ 등의 문구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었다.

일부 상장사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공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한다. 한 바이오 상장사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다. 향후 계약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업의 기밀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술 이전계약을 할 때 기술료(마일스톤)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일스톤을 공개할 경우 추후 계약에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할 때 조건부 계약 여부, 조건부 금액(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국내 첫 어덜트 토이브랜드 스토어

브랜드 단독 팝업스토어 오픈을 알리고 있다.

색수월 헬스케어 브랜드 ‘TENGA(텐가)’가 13일 오전 서울 홍대 연남동에 국내 어덜트 토이

/손진영 기자 son@

## 진매트릭스, 유럽CE 인증 획득 장염바이러스 한번에 다중검사

총 12개 분자진단기 품목군 보유 환자에게 시간·비용 부담 크게 줄였다

진매트릭스는 급성장염 원인 6종 바이러스를 일괄 진단하는 ‘네오플렉스 GI-Virus6(NeoPlex GI-Virus6 Detection kit)’의 유럽CE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라인업 추가로, 진매트릭스는 국내 제품 4품목, 유럽(CE) 제품 8품목 등 국내외 총 12개의 분자진단 의뢰기기 품목군을 보유하게 됐다.

‘네오플렉스 GI-Virus6’는 진매트릭스의 다중진단 제품 중 소화기질환 관련 분야 첫 제품이다. 주요 장염 원인 바이러스를 한 번에 다중검사 할 수 있어 환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겨울철 아메류 등에 의해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를 포함해,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중증 위장관염을



GI-Virus6 제품

/진매트릭스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장아데노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 급성장염, 설사 유발하는 바이러스 6종을 단일 검사로 일괄 진단할 수 있다

진매트릭스 관계자는 “이번 네오플렉스 GI-Virus6를 출시로 소화기질환 관련 제품까지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다”며 “회사의 분자진단 원천기술인 C-Tag™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현재 중동 아시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해당 시장 진출을 위한 활발한 미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물품 전달

광동제약

제주지역 소외계층에 1억원 상당 제품 나눔

광동제약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지회 사무실에서 ‘광동제약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행사’를 갖고 1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제주삼다수 소매용 제품의 도외지역 위탁판매를 맡고 있는 광동제약이 제주도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약 1억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 기부를 지속해오고 있다.

/김민지 기자

## CJ오쇼핑 우수 협력사에 현금인센티브 1억

동반성장 협약기업 총 5곳 실적 따라 최대 5000만원 ‘프롬바이오’ 인센티브 1위

CJ ENM 오쇼핑부문이 2019년 하반기 판매 실적이 우수한 동반성장 협약기업 5곳에 총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수여하기로 했다.

지난 해 3월 동반위와 체결한 ‘혁신 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이다.

이 제도는 판매 수익을 협력사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형 인센티브 제도로, 협력사들은 취급가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종합달성률 실적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곳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사인 ‘프롬바이오’다.

이 회사는 CJ ENM 오쇼핑부문을 통해 관철 건기식 ‘보스웰리아’와 위 건기식 ‘매스틱’,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인 ‘망고다이어트’를 판매해 종합달성률을 북

표 대비 20% 이상 초과 달성하며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015년 CJ오쇼핑을 통해 흡수식품 시장에 첫발을 디딘 ‘프롬바이오’는 현재 CJ오쇼핑을 통해서만 연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여행용 캐리어 제조업체인 ‘더네이처홀딩스’와 언더웨어 제조업체인 ‘이너플랜’은 각각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영유아용 도서기업 ‘블루래빗’과 패션브랜드 ‘지오송지오’로 유명한 ‘엘리어트’도 우수한 판매실적을 인정 받아 각각 100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

CJ ENM 오쇼핑부문 관계자는 “매년 두 번씩 실시하는 ‘협력사 인센티브’ 시상이 건강한 흡수식품 산업 생태계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함께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 가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사업자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던킨, 별도제작 배달전용 패키지 도입

SPC그룹 던킨은 모바일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던킨은 별도 제작한 배달 전용 패키지를 도입한다. 간편식(핫샌드위치 등)과 음료를 각각 1개씩 동시 주문하면 적용되는 패키지다. 이 동시 흔들림을 최소화해 제품 손상을 방지했고, 외부 공기 노출을 줄여 안전함을 더했다.

배달 판매 채널의 경우 배달앱과 ‘카카오 선물하기’, ‘쿠팡이츠’ 등으로 점차 더욱 넓히고 있다.

배달 이용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는 해피앱과 해피오더앱에서 최대 7000원 할인을 제공 중이다. 배달앱 요기요에서는 슈퍼레드위크를 통한 2000원 할인과 카페 및 디저트 카테고리 최대 7천 원 할인을 진행하며 배민에서는 3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김민지 기자

### 달콤커피

#### 진한 달콤함 ‘다크 쇼콜라’

달콤커피는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THE BOYZ)’와 협업한 밸런타인데이 한정 메뉴 ‘다크 쇼콜라’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다크쇼콜라는 달콤한 초콜릿 스무디다. 초콜릿 휘핑 크림에 다크 초콜릿, 장미 꽃잎 토핑을 얹었다. 다크 초콜릿의 진한 풍미와 우유의 부드러움이 조화로운 맛은 물론, 다크 초콜릿 트리플이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비주얼까지 갖

/김민지 기자